

禪詩의 세계로 초대

이종찬교수 '허공의 딸꼭질'

선시 120편 간추려
작품배경·선사의 사상
서정적이고 감칠맛 해설

구도의 과정에서, 또는 깨달음의 법열을 감당하지 못해 속구친 마음을 선사들은 시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선시에는 선사의 자유자재한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자연을 관조하고, 자연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감지하려는 감성도 깃들여 있다. 선사들의 오관은 황홀하고 화려한 시무리들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다.

달마대사는 "나의 법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할 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자를 빌려야만 표현이 가능한 시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과 어떻게 나란히 자할 수 있을까. 선이나 시는 모두 깨달음이라는 선행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깨달기까지는 시에서 선의 방법을 구해오고, 깨닫고 나서는 선이 시에서 표현방법을 빌려 온다. 말을 거부해야 하는 선의 오묘한 깨달음에도 끝내 시적으로 축약된 언어가 필요하다. 이 때 깨달음의 표현에 가장 적절한 것이 시이다.

도서출판 여시야에서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문학편의 첫 번째 권인 <허공의 딸꼭질>은 시를 통한 선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선사들의 초탈적 여유와 향기, 치열한 구

도의 의지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한해 휴정 정관 부휴 소요스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사 41인의 선시 1백20편이 실려 있으며, 개별 작품의 배경과 지은이의 사상, 그리고 선시에 담긴 불교적 의미가 자세하면서도 쉽게 설명돼 있다. 지은이 이종찬 교수(동국대 국문학)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칠맛 나는 해설이 선시의 깊이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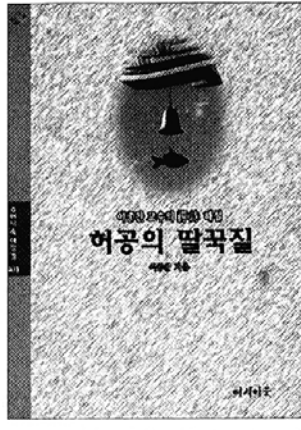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선시는 현대불교신문 창간부터 '불심십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연재해 온 1백50여편 중에서 간추린 것이다.

'옛날에는 하늘과 구구방을 쌓더니/지금은 중과 친구되어 허공을 치다/처가고 처할 때 절로 이는 허공의 딸꼭질/후유 하는 소리 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 조선초기 함허스님(1376~1433)이 부채를 두고 지은 시다. '바람은 허공의 딸꼭질'로 제목 붙여진 이 시는 일상의 삶이 바로 선임을 보여준다. 휴정스님(1520~1604)의 시 '하늘가에 지는 산'은 한쪽의 그림같은 풍경을 비단처럼 짜놓은 여장을 노래하고 정도를 갈구하거나/나무 성글어도 다함없는 감/아득한 하늘 끝 심산이 침몰하네'. 이종찬 교수는 이 시를 "무한의 절과 소리만 상에 함축되어 있는 우주의 진실된 정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

선사들은 시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을 노래하고 정도를 갈구하거나/나무 성글어도 다함없는 감/아득한 하늘 끝 심산이 침몰하네'. 이종찬 교수는 이 시를 "무한의 절과 소리만 상에 함축되어 있는 우주의 진실된 정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종찬 교수는 책 서문에서 "바람에 섰다가 뜻밖에 나타나는 외대리를



만나는 기분, 선시는 항상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적고 있다. '외대리'는 선기(禪機)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다. <허공의 딸꼭질>은 읽는 사람에게 따라 변화무쌍한 의미를 지니는 선시의 매력과 특색을 담고 있다. 이종찬 교수는 11일 동국대에서 정년퇴임 기념으로 문집과 선시 해설집 <허공의 딸꼭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값 5천원. 한영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사찰음식문화 과학적 분석

최진호교수 '선식의 비밀'

'식가모니 의학'.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생소한 말이다. 그렇지만 <불의경> (의유경) <요치병경> 등 의학에 대해 실려된 수많은 경전을 보면 '불교의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최진호 교수(부경대 식품생명과학과)가 펴낸 <선식의 비밀>(삼과 품 판)은 사찰음식문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불교의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지혜를 밝혀내고 있다. 주테마는 사찰음식이지만 이에 접근하기 위해 저자가 끌어들이는 방대한 경전자료는 '의학'에 대한 부처님의 사상을 깊이 이해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사찰음식이 불교의 출발점인 생로병사라는 인간존재에 뿌리를 둔 본원적인 고뇌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내용 전반에 함축시키고 있다. 그래서 불가의 식습관을 불교사상과 접목시켜 설명하면서 불로장생의 지혜가 불교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불교의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불가에는 소식(素食·변변잡은 음식)을 소식(少食)하고 남는 음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시해야 한다는 부작여식(不作余食)의 식습관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최근 스님들의 장수비결이 소식(少食) 소염(少鹽) 소당(少糖) 등에 있음도 밝혀진 바 있다.

이 책은 각종 문헌과 경전을 토대로 이같은 승가의 식생활을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찰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왜 일일일식의 원칙을 강조해 왔는지, 그리고 차(茶)가 어떻게 선승의 수행식이 될 수 있는지를 현대과학의 이론으로 접근했다. 또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건강의 비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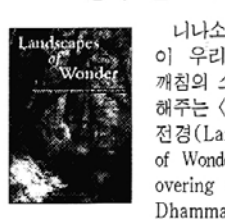
한국생명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최진호 교수는 '장수과학'을 연구하는 생화학자로 "스님들의 장수비결을 밝히고 사찰음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발간의미를 밝혔다. 값 1만2천원. 한영우 기자



경전·운현도대 불가의 식습관 장수비결등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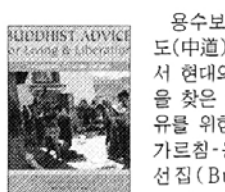
해외신간

경이로운 전경



이 나니소바노스님 이 우리 주변의 개척의 소리를 전해주는 <경이로운 전경(Landscapes of Wonder: Discovering Buddhist Dharma in the World Around Us)>을 펴냈다. 이 책에서 나니소바노스님은 낙엽, 활강하는 새, 겨울의 풍광 등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에서 사색제, 팔정도 윤회 등 불교 기초 교리의 뜻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니소바노스님은 서문에서 "우리의 습관, 관념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떠나 법(法)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Wisdom刊. ISBN 0861711424

삶과 자유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



용수보살의 <중도(中道) 사상>에 대한 현대의 가치관을 찾는 <삶과 자유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용수보살 선집(Buddhist Advice for Living & Liberation: Nagarjuna's Precious Garland)>이 발간됐다. 저자 제르르 토크스는 정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를 꼬집고, 이에 맞서 현대인이 지녀야 할 '불교적 미덕'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Snow Lion刊. ISBN 155939 0859

우둔함에 담겨있는 현명함



"인간의 영혼을 다룬 감명적이고 도전적인 책"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의 극찬을 받았던 <우둔함에 담겨있는 현명함(The Light Inside the Dark: Eastern Spiritual Practice and the Western World)>이 발간됐다. 저자 존 타란트는 "고대 선승(禪僧)들의 명쾌한 '직관'을 미국의 신세대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Harper Collins刊. ISBN 0694520241

종교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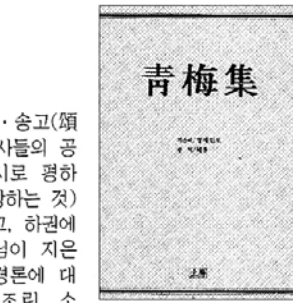
일본의 대표적 종교철학자 야기 세이이치(八木誠一·요코하마대) 교수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는 주로 불교와 기독교"라고 밝히며, 이 저서는 "두 종교의 중심적 내용과 사상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란 종교적 진실로 실증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일 뿐이라는 내용이 요지다. 법장판(法藏館)刊

청매스님의 사상 '옛보기'

해봉스님 '청매집' 번역 출간

청매스님(1548~1623)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선사이자 승병장으로서 불교역사가 가장 알음알음 조선후기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이다. 또 불교뿐만 아니라 노장과 목자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봉스님(양주 대성사)이 펴낸 <청매집>(토방 판)은 2권1책으로 돼 있는 청매스님의 유고집인 <청매집>을 번역한 것으로, 청매스님의 치열한 수행 모습과 깨침의 경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청매집>은 문인 유경(惟敬)이 엮은 것으로 상권에는 역대 조사의 고사에 대한 선계(禪偈)·송고(頌古)·선사들의 공안을 시로 평하고 제창하는 것이 있고, 하권에는 스님이 지은 시와 경론에 대해 읊조린 소(誦) 등의 시문이 실려있다. 이 책은 상·하권의 내용을 하나로 묶었으며, 청매스님의 행장과 수행구조와 깨침의 경지를 분석한 글을 '해제'에 실고 있다. 2만원.



한영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룡	효림
2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시카	여시야
3	한국불교 기도서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4	산에는 꽃이피네	법정	동쪽나라
5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6	봉황의 제형	골드스테인	한길
7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사성	장승
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정하
9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효림
10	화두 짓는 법	태평권부	토방

구입문의:(02)737-0695

금강경 고목스님 지음

금강경서 찾은 현대인의 가치관

물질문명과 개인주의로 찌들어 가는 현대사회, 사람들은 이 병폐를 치유할 답을 원한다. 특히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그 지혜를 얻고 싶어할 것이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그동안 저작활동을 통해 불교를 알려온 고목스님의 <금강경>은 경전내용을 쉽게 전달하면서도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관을 찾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원문과 그에 대한 주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자적 의미에 얽매지 않고 부처님 교설의 참의미를 따라가고 있다. 잘 쓰지 않는 고어(古語)와 어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놓아 평이하게 읽을 수 있다. <삼양, 8천5백원>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한진진 지음

고비때마다 불교에서 얻은 용기

원효대사와 해골에 얽힌 유명한 일화는 '인제유심조'의 깨달음을 말한다. "내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다.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간의 허약함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내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다." 영화계의 대부로 불리는 한진진씨(한진공업주식회사 회장)의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는 성장기부터 지금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그린 자전 에세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배경과 영화 '팔만대장경'을 완성하기까지의 고통 등 75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필요한 용기를 느낄 수 있는 책. <동아일보사, 7천5백원>

우리 옛 건축에... 류경수 지음

전통건축과 자연환경 심층분석

내년은 정부가 정한 건축문화의 해. '우리 건축'에 대한 재조명과 21세기의 미래상을 설계해보자는 의도에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가 류경수씨가 펴낸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은 우리 건축의 공간구성과 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전통건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사찰 건축의 경우 자연을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지어졌다는 분석을 비롯해 불국을 형상화시킨 불국사,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밖에도 경북공과 수원 화성, 도산서원, 충효당 등 궁궐과 성곽, 서원, 살림집 등이 생명한 화보와 함께 소개돼 있다. <대원사, 1만5천원>

●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 행장기 **최초발간**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華嚴經)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맑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절을 일구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린 것이다. 다소 호러리웠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指南)으로 삼아 추스르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된다. 광우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다가선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읽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세척해 금을 찾는 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이 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공백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해우스님 '출간에 부처' 중에서

한·국·불·교·를·빛·낸·근·세·비·구·니

깨달음의 꽃

허춘생 지음 | 도서출판 여려 펴냄 | 296쪽 | 값 7,800원

도서출판 여려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명빌딩 201호 · 전화 (02)730-8976 · 팩스 (02)723-6801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을 탈종합니다.

우남은 화동종단의 태고종 추종회의 원으로 화동통합의 대불사에 공헌한 바 있어 1970년에 태고종에 종단등록된 본 정토사를 인수 유지하온바 종단의 보호 지도를 감수했어옵니다.

이번에 청담문화재단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선사에 본 정토사와 그 부속 재산 일체를 헌납기로 하였습니다. 귀종단에 불은이 가피하사 광도이룬 대자대비의 원력을 이루시옵소서

1998. 12. 9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정토사 주지 박설산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법하

선농회안내

말없이, 흠없이, 끝없이 정진한다.

안거

- 춘: 정계(음) 2월18~해계(음) 4월18
- 하: 정계(음) 4월18~해계(음) 6월18
- 추: 정계(음) 8월18~해계(음) 10월18
- 동: 정계(음) 10월18~해계(음) 1월18

백일기도

- 춘: 동 안거 해제일 ~ 하 안거 결제일
- 하: 하 안거 해제일 ~ 하 안거 해제일
- 추: 하 안거 해제일 ~ 동 안거 결제일
- 동: 동 안거 결제일 ~ 동 안거 해제일

법회

- 보시(財): 초보심심
- 지계(戒): 화엄경
- 인욕(忍): 법화경
- 정진(持): 선어록
- 선정(禪): 금강경
- 반야(空): 청아경
- 관음(觀): 관음경

※ (오랜고사·재미반) · 원효법회, 매주월요일 오전 10시 · 특별법회, 선양·해상·강변·약사 · 화사법회(음) 18일 오전 10시 · 약사법회(음) 8월 20일 오전 10시 · 지장법회(음) 18일 오전 10시 · 반야(空) 청아경 · 관음(觀) 24일 오전 10시

● 결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대중에 맡기고 스스로 정한다.
● 방법: 본부 대량 중심으로 하고, 출입 자재는 별도로 합니다.
● 기도시간: 새벽 4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7시
● 운량: 일이 있으면 일과 하고, 안산생활에 들어 갑니다.
● 가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노력으로 처리합니다.

승금계좌: 우체국 농성회 102095-0003495
문의전화: 발명선원 722-1101·선농회 722-0921 (02) 농성암 363-9626 (FAX) 736-1914